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전교인 대상으로

성경 읽기 특별집회

8월 26~29일, 기간중 새벽 · 오전 · 저녁 세차례 집회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 한번 읽지 못한 분은 오십시오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잠이 오시는 분은 오십시오
성경 읽을 때 끝보다 더 단 맛을 보지 못한 분은 오십시오
처음 사랑을 찾고자 하는 분은 꼭 오십시오

교회는 오는 8월 26일(월)~29일(목) 4일간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암송 특별집회를 갖기로 했다.

기간 중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세 차례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 및 통독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또 저녁에는 성경 통독 및 암송에 관한 간증 및 설교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기간 중 새벽과 낮 시간을 통해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 마가복음 · 요한복음 · 로마서 · 고린도전후서 · 히브리서 · 야고보서 · 유다서를 통독하게 된다.

강사는 성경 통독 집회를 실시하는 요한선교단의 대표인 박종면 목사이다. 박목사는 알콜 중독으로 기억 상실 등 폐인이 되었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5년 동안 성경 3천 절을 암송하며 성경 통독과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을 순회

하며 성경 통독 및 암송 집회를 인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 중에 많은 유익한 일들도 생겨 간증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경으로 참가한다면 이번 집회는 여러 모로 성도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 성경 읽기 암송 체험 간증 사례 ▶

20명에서 80명으로 부흥

IQ는 두 자리 수인데다가 외우는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내가 훈련 참가 후 시작한 성경 암송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끝째만 하던 굳은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비상한 머리가 되었다. 말씀을 2년만에 3월 질 이상 암송하게 되니 설교에 저절로 힘이 생겨 처음 섬긴 교회의 중고등부가 한달 만에 20명에서 80여명으로 4배로 부흥되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나고 생활이 달라졌다. (박점규 전도사, 광주 청산교회)

96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교회는 오는 8월 25일에 96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반기 장학생들이 오늘까지 1학기 성적표를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2학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성적표는 교육국(교육관 103호)으로 제출하면 된다.

	26일(월)	27일(화)	28일(수)	29일(목)
새벽		성경통독 / 마태복음 암송특강 / 누가 암송하나 성경 / 욥 22:21-22	성경통독 / 로마서 암송특강 / 왜(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 / 시 19:7-10	성경통독 / 히브리서 암송특강 /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스러운 종 성경 / 마 24:45-47
낮		성경통독 / 마가, 요한복음 암송특강 / 왜(전도를 위해) 성경 / 행 18:5	성경통독 / 고린도전후서 암송특강 / 왜(승리와 기도 응답) 성경 / 수 1:8-9	성경통독 / 야고보, 유다서 암송특강 / 홍년을 준비합시다 성경 / 암 8:11-13
저녁	성경 / 딤후 3:16 설교 / 가장 큰 비밀 설교, 간증, 특강	성경 / 고후 5:15-17 제목 / 새로운 피조물 간증 / 알콜 중독자가 예수 중독자로	성경 / 시 119:98-105 제목 / 정금보다 귀한 말씀 간증 / 기억 상실자를 기억 천재로	성경 / 빌 3:17-21 제목 / 바울을 본받자 간증 / 필박자를 전도자로

수재민을 도읍시다

이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기습 폭우로 엄청난 재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명의 인명마저 순식간에 잃게 되어 피해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정부 당국은 최선을 다하여 피해 복구와 구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 모금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 접수처 : 사무국(교육관 1층)
- ▶ 모금품목 : 성금 및 생필품(식품 및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단, 의류품은 제외함.

8월 21일 수요일2부예배는 동서울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예배로

오는 8월 21일 수요일2부예배는 동서울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순회예배로 드려진다.

동서울노회 산하 남전도회 연합회에서는 노회 소속 교회에서 순회 헌신예배를 드리며 남전도회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며 연합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교회 소속 각 교구 남전도회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여 노회 남전도회연합회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날 사회는 구승호 장로, 기도예 최공열 장로, 성경봉독은 김재균 장로, 설교는 원사연 목사(섬기는 중, 요 13:13-17)가 담당하게 된다.

교구개편을 위한 공청회 열어 오늘 오후3시, 갈릴리홀에서

교회는 현행 13개 대교구 내에 27개 소교구(국제교구 포함)로 나뉘어 1개 대교구에 한 명의 목사와 두 명의 전도사가 사역하며 운영하고 있는 교구 제도가 그 동안 시행해온 결과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함께 교구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18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교구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오늘 공청회에는 장로, 교역자, 안수집사, 권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구 개편에 대한 바른 의견들이 수렴되기를 바라고 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원수들 앞에서 담대한 신앙고백(2)

(시편 27:7-14)

1. 원수의 포위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

신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건강해도 숨을 쉬고 낮에 깨어 있어도 숨을 쉬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쉽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숨 쉬는 것과 같고 나무뿌리에서 나뭇가지로 진액이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하는 것이 끊어지면 나뭇가지는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시들어 죽습니다.

신자에게서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의논하여 응원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조금 잘났고 조금 못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난 사람이 조금 잘난 사람과 싸우게 되면 질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끼리는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못나고 약해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보다 조금 낫다고 뽐내던 사람은 태풍 앞에 먼지가 날아 가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이 귀한 기도없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도 기도요, 일을 성공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응답을 받고 선언을 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2. 다윗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똥둥이를 들고 때리시기만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느라고 아무도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 번 잘못했어도 울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 주십시오' 하고 공로를 내놓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하는 기도야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변하는 법이 없으니까 변함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3)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윗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우상을 구원자로 삼은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았으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권능, 변함 없으신 사랑, 변함 없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생각하니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겠습니다'

3.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1)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당시는 그가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은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 앞에 버림받은 때인데, 사람들 모두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옵소서. 못쓰겠다고 버리고 필요없다고 떠나고 쓸모없다고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게 해 주옵소서.'

(2)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지금 캄캄한 밤에 도망을 가는데 어느 길이 사는 길이고 어느 길이 죽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암살름이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한 계획은 벌써 5년이 넘는 계획입니다.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벗어나려면 다윗의 지혜로는 어렵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악한 사람의 계획이 뒤바뀌게 해 주옵소서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악한 사람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나를 죽일 수 없는, 자기가 실패할 계획으로 뒤집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 부하들에 대한 다윗의 위로가 어떠합니까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는 부하들을 위로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 임금이 도망가는 일이 말할 수 없이 벅잡한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낙심하니까 세 가지로 위로합니다.

첫째,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던 복을 하나도 안 주신 것이 없다. 시골에서 양

아무리 못나고 약해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보다 조금 낫다고 뽐내던 사람은 태풍 앞에 먼지 날아 가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이 귀한 기도없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도 기도요, 일을 성공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치던 목동이 임금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내가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나를 위해서 와서 기름을 부을 때에 형 일곱 사람에게 안 붓고 막 내인 내게 기름을 부었어. 부으면서 네가 장차 임금이 된다고 하신 그대로 내가 임금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가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란으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러니 나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죽으면 너희도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라고 위로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지금은 시험을 당했지만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영광이 크지 않던가. 우리가 지금은 도망을 가지만 이기고 돌아갈 때에는 영광이 더 크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조용히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축복을 기다리자' 라고 위로를 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홍해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을 겁내지 않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졌습니다.

셋째, '암살름을 보지 말고, 도망가는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 보아라' 고 위로를 합니다.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친 염려를 미리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 같아 보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 망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 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눈을 감으면 내 영혼에 그 얼굴빛을 비춥니다. 눈을 뜨고 홍해를 보고 눈을 뜨고 애굽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이 안 보이는데 모세는 애굽 사람보다 하늘을 우러러봄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홍해나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때리는 원수들을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돌에 맞은 자리와 몸에서 피나는 것을 보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때리는 원수도 안 보고 자기의 깨진 몸도 안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공로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 번 잘못했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권능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말아 주옵소서. 내 갈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계획은 뒤집어 엎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윗 임금은 도망간 지 며칠 안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기도하면 편안할 때보다 속사람이 10배, 100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속사람이 은혜 받으면서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기도로 밀고 나가는 사람은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사는 길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를 못하고 원망을 하면 영혼이 먼저 죽고 육신이 죽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제화와 함께하는 영어성경공부

이 선 우

(집사, 영어예배부 성인 BBC 교사)

작년 가을 영어예배부에 새로 담임해 오신 Paul Lee(이승림) 목사님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올해 초에 영어예배부 내에 성인을 위한 2중 언어 성경반(BBC: Bilingual Bible Class)이 탄생되었다.

성인 BBC는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욕기 8장 7절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란 말씀에 격려를 받아 지금은 많은 형제, 자매가 모여 영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영어 성경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우선 답할 것 같으면 한국말만으로서의 복음 전파는 여러 가지 제한성과 제약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영어는 세계 공통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도 영어로 통할 수 있으니, 우리의 영어 성경 공부는 복음 전파의 국제화, 세계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BBC는 자체적으로 분석해봐도 여러 가지 매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선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한영 성경전서를 사용하니까, 현재 미국 및 기타 영어 사용국에서 많이 쓰이는 성경책을 그대로 읽고 호소할 수 있으며, 현대적 용법으로 된 주옥 같은 영문학 작품을 읽는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역시 한국인이니까 영어성경을 읽다가 또는 영어설교를 듣다가 애매하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한국어 번역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참고하면 잘 이해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원어면보다 더 정확하게(?) 인명과 지명에 대한 발음지도도 하고 있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영어로 설명하고 토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어성경을 주로 영어로 설명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포함하는 외국인 회원에게는

한국어를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연히 BBC의 구성원들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3,4명은 서양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역 장교 생활도 했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외대 영어과)에서 영어교수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영어 성경 공부에 목말라하는 충현 식구에 단비가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감사와 친절로써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원 중에는 Larry라는 형제가 있어 2주간은 한국 직장에서 근무하고, 또 나머지 2주간은 미국의 자기 고향 Temple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BBC반원들과 Temple의 성경반원들 사이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패스로서 우리들은 소위 People and Prayer Link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서로 교환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나누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반에 축복을 주셔서 요사이 반원들의 수가 급증하고,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주일 10시반이던 충현복지관 108호에서 기쁨과 설렘으로 BBC에 모이고 12시에는 마친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반원들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써 잘 대처하고 있다.

충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환영하니까,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것이다. '이 나이에 하라', '부끄러움을 잘 타서', '발음이 좋지 않아서' 등의 생각을 과감히 떨치고 늦다고 여길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같이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세계화를 호소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며, 말씀의 반석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현세의 금메달보다 영생의 면류관을

이 소 현

(집사, 제1-1교구)

근대 올림픽 백주년을 기념하는 애틀랜타올림픽이 지난달 20일부터 17일 동안 197개국의 1만5,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지구촌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평화와 우정을 다짐하고 분초를 다투며 영광과 좌절의 드라마를 엮으면서 감동과 아쉬움의 무대를 펼쳤다.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축제는 끝났어도 감동은 남는다.

애틀랜타올림픽이 많은 사건과 일화를 남긴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을 소개하고 싶다.

주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가 미국 대표선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인물"은 응답자 가운데 38명이 '예수님'이라고 답했고 '부모'라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다. 3위에는 미국 프로농구(NBA)의 마이클 조던, 4위에서 7위까지는 이미 고인이 된 존 F 케네디, 윈스턴 처칠, 마틴 루터 킹, 아인슈타인이었고 클린턴 현 미국 대통령은 8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신앙집단을 상대로 한 설문도 아닌 강훈련 속에서 승부의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체육인들의 반응이었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각 나라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오색 인종이 모여 사는 미합중국에서 문제가 많은 나라이고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 깨어진 나라로 보이지만 역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미국의 뿌리는 견고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죽음의 향해를 마치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은 후손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었다.

1979년 책을 통해 듣고 배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지혜와 동전까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는 글이 새겨진 것을 보고 '아! 바로 이것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

가가 되고 축복된 나라가 된 것은...' 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의 감동을 17년만에 다시 받았다.

육상계의 간판 스타인 칼 루이스 선수가 "금메달은 올림픽 폐막 후에 쓸쓸히 선반 위에 놓여져 먼지가 쌓이게 되지만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메달은 영원한 것"이라는 내용의 간증을 금메달 시상주의, 1등 시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금메달감 간증이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딤후 2:5)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딤후 4:7)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에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을 보며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암송하게 된다.

여름성경학교 를 마치고

"예수 천국"

강 윤 정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첫번째날에 성극을 했다. 제목은 '예수 천국'이었다. 최봉석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천국 마귀 지옥"이라고 소리치며 다니다가 일본놈에게 붙잡혀 죽도록 맞았다. 그래도 최봉석 목사님께서 "예수 천국 마귀 지옥"이라고 다니며 예수를 전도했다. 그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최고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나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전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믿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고등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회개와 새롭게 변화된 시간들

하 주 연

(고등부)

고등부 첫 여름수련회를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충현기도원이 아닌 양수리수양관으로 가는 수련회였기에 더욱 부푼 마음으로 간 수련회였어요. 익숙해져 있지 않은 낯설은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곳이었죠.

성전과 숙소가 떨어져서 조금 힘이 들기는 했지만 먼 길을 걸으며 형제 자매

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흥회 시간에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작곡하신 '성령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라는 주제 또한 은혜스럽고 멋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지가 되어야 하며 주님의 위리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뜨끔했어요.

세상에서의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보다는 세상 것에만 너무 전전긍긍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고, 그 동안 주님의 위리가 필요하다고 느껴면서도 다른 것 때문에 주님께 위로 부탁을 드리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 주님께 순종하기 보다는 반항을 한 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더러운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나.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새것이 되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더러운 배설물. 즉 내 마음을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새것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부르

짖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고생하신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 도우며 이왕에 수련회에 수고하여 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만큼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영광과 신앙의 성장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님들께 하고픈 말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PS /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청년2부 여름수련회를 기대하며 보다 새롭게, 보다 신선하게

이근주
(청년2부)

며칠 전부터 폭우처럼 쏟아지는 장마비와 불볕더위가 며칠째 번갈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폭우와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요즘 각 부서의 교회학교에서

교회설립43주년 기도원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기념 부흥사경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강사: 김 오 용 목사
(동일로교회 담임목사)
- 일시: 9월 2일(월) 밤~
6일(금) 새벽까지
- 장소: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 9-1
☎ 0347-66-5425, 65-5472

는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그 열기가 대단하다. 이런 경우를 이열치열이라 하던가. 그 대열 속에 우리 청년2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엄필성 부장 장로님과 김정우 목사님의 지도 아래 여름수련회 준비로 그 열기가 대단하다.

여기에서 평소의 우리 청년2부에 관하여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청년2부를 잠시 소개할까 한다.

매주일 12시 30분 교육관 407호에서 만30세~39세까지의 성도를 대상으로 모임 및 집회를 갖고 있으며 다른 부서들과는 달리 부부반과 미혼반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회원들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들겠지만 그리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특별(?)하다. 왜냐하면 집회후에 그룹성경공부와 친교를 위하여 조요셉 면회회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매주 시편 강해를 통하여 신선한 생수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정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련회나 특별 강의를 통

하여 때때로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좋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청년2부의 특징이다. 이번 수련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개혁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시며 한영교회 협동목사로 계시는 이정섭 목사님을 초빙하여 8월 19일과 20일 저녁 갈릴리홀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해온 수련회라 쉬울 것도 같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회원 확보(?)하랴, 찬양 준비 하랴, 보다 좋은 주제로 프로그램 짜랴, 또 성가대(?)를 재구성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날의 준비 찬양을 통하여 회원 및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우리 청년2부에서는 전 회원이 이 수련회를 위하여 매일 정오에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수련회의 참가 회원을 300여명으로 정하고 있어 2000여매의 홍보지와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 회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 확보도 문제지만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많은 회원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그 동안 세상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바탕으로 거룩되고 성화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

여와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석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무엇보다 이 수련회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동행하여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며 많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청년2부 여름수련회 '성화'를 주제로

8월 19일(월), 20일(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성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잘 모르고 길을 떠난다면 나그네는 도중에 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번 수련회 강좌는 '성화'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정석 교수께서 '성화'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금번 강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란 어떠한가 하는지' 보다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복된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기간: 8월 19일(월), 20일(화)

▶ 장소: 갈릴리홀

▶ 참석대상: 전 교인

◀ 농어촌전도를 다녀와서 ▶

춘천 동면의 밤하늘

박종성
(청년1부)

만일 복음이 진정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며 그 시기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 시작이다!

호박밭 잡초 제거, 비료 주기, 철갑산 야박내 흉내내기, 오이순 따기, 감자 캐기, 고추 따기, 논두렁 잡초 제거 ...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하게 났으며 대부분 완전 복장 속에서 이곳저곳에 굴뚝 흔적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역을 보람과 감사로 감당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

전체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땀과 상처와 피곤으로 해낸 회원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마음 조이며 대소사를 감당하신 준비위원들, 때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주신 세 분과 현지에서 계신 흥 전도사님과 주민들 ... 이 모든 헌신에 대한 칭찬과 감사는 이 사역에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분이 각자에게 합한 대로 채워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생략한다.

누가 감히 40여명의 땀과 수고를 대신하여 글을 쓸 수 있을까.

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자신에 채찍질이라는 생각과 가소로운

소견이나마 미려한 도움을 바라며 주제넘은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 달 이야기!

나는 이번 사역이 농활인 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농촌에서 자랐기에 농사일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뻔히 알기 때문이다. 속은 줄(?) 알면서도 굳이 따라간 것은 개인적 경건의 회복에 다짐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과 농사일에 서툰 회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다들 생각했을 것이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토록 장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나. 뭐하러 돈들여 가며 귀한 휴가를 이곳까지 와서 농사일을 찾아 하나? 차라리 만나기 쉬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몇 년을 더해가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니 받아들일 날이 오기는 오는걸까. ... 그런 중에도 한 가지 취지는 맘에 들었다. 예수 생이 티 안내고 말없이 그들에게 농사일만 돕다가 오는 것 말이다. 내가 보아온 전도 행사는 요란하고 일회적이었는데 이번 사역은 장기적인 소망을 가지고 조용히 땀 흘리다가 온 것이다. 물론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몇 분이 새롭게

우리와 한 가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시도는 과거의 관례를 깨는 획기적 시도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농부들은 매일하는 일인데 며칠 일하고 와서 무슨 요란이냐고. 맞다. 내 생각이 바로 그랬다. 나도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치밀한 계획, 철저한 준비, 밀도있는 진행에 대한 아쉬움 중에도 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별뿔별 같은 별애기들이 떠올랐다.

— 별뿔별 이야기!

그리고 돌아왔다.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보람된 기억을 뒤로 하고 일상의 쳇바퀴에 몸을 실을 것이다. 내가 주께님께 펜을 든 것은 이 쳇바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이다. 청년부가 낙도, 오지, 수해지에 다녀오고 해외 선교를 마치고 다시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산다면 이 모든 사역은 분명 전도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의도했던 안했던간에 4명이나 예수애기를 꺼내지도 않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손발에 물집과 금진 흔적을 갖고 돌아왔던 그 수고의 무게와 영혼 구원에 대한 진지한 바램을 우리 각자의 평범한 일상 속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행사를 통한 공적인 사역뿐만이 아닌 사소하게 여겨지고 자칫 무시하게 살아가는 각자의 일상 중에 그 행사 때의 의도를 가지고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같은 수고와 긴장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것이다.

왜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했을까. 일상을 통한 잔잔한 수고, 숨에 스며드는 물처럼 몸에 밴 섬김, 익숙한 희생이 없어서일 것이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요란하고 특별함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조용하고 지속적인 삶의 모범에는 저항할 힘을 잃게

된다. 일시적으로 객기를 부리거나 무시하려 할 수는 있으나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들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의 전도는 겸허히 이벤트화되는 것을 포기함에 단호해져야 한다. 행사로서 성취감을 갖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제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의 정열을 소리 없는 수고로 보여 주자. 요란하지도 위축되지도 말고 무게 있고 강하게, 그러나 땀과 상처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임을 확인하고 그 전리품과 승리의 환희를 만끽하는 수준에 이르자. 씨를 뿌리는 수고도 적과의 싸움도 없는 광야의 길을 벗어나자.

부족한 자가 진심으로 바라건대 우리의 무미건조해지기 쉬운 일상의 순간 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만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그 시선으로 부딪히는 이웃을 바라보자.

평범한 일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자가 어찌 열매를 맛보아 알 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에서 피흘려 싸우지 않는 자가 어찌 승리자의 희열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일과를 마치고 땀과 흙에 찌든 고단한 몸을 계곡 물과 샤워장에서 씻어내는 상쾌함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루하루를 제대로 다 달린 후 바울의 고백을 해보자.(행 20:24; 딤후 4:1-8)

"내가 섰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